

'참여연대 생성형 AI 이용 및 규제 가이드라인'(안)

내부 논의 사례

AI와 비영리, 네 가지 얼굴로 마주하는 변화의 파도
사례발표 4. 기술의 시대, 다시 사람과 현장을 묻다 - AI 활용의 경계와 기준

2026.04.09. 참여연대 권력감시팀장 김희순

시작하기에 앞서

- 생성형 AI 이용에 죄책감/부담이 느껴지나요?

지금 당신의 고민이 저를 비롯해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작용/단점을 최소화하는 이용 방안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싶습니다.

- 조직 차원에서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논의의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직 참여연대도 논의 중이며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답은 유동적.)

이야기 순서

1. 이야기의 시작 : 참여연대가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
2. 논의를 준비하며
3. 현황파악1 : 구성원 설문조사
4. 현황파악2 : 오지랴한마당
5. 가이드라인 만들기 : 과정과 쟁점
6. 이야기의 결말

1. 이야기의 시작 : 질문

더 나은 시민운동의 수단을 고민하며

“뉴스레터에 생성형 AI로 요약한 음성을 제공할까?”

- 9만 구독자 뉴스레터 사업 VS 인공지능 정책 모니터링 사업
 - 검찰보고서 < 그사건그검사 (검찰감시DB) < 끄의세계
- 생성형 AI 이용에 대한 고민의 출발점은 더 나은 활동, 시민에게 가닿은 활동에 대한 고민이 출발점이었음
- 그러나 생성형 AI 이용에 앞에 많은 질문들

2. 논의를 준비하며

더 나은 시민운동의 수단을 고민하며

논의의 시작과 도전(1): 거버넌스

- 논의할 사람과 단위를 만들자(거버넌스)
 - 인공지능 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 (공익법센터)
 - 시민과의 만남을 고민하는 사람 (미디어홍보팀, 소통국)
 - 참여연대 활동 목표와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 (정책기획국)
 - + 저연차 활동가

논의의 시작과 도전(2) : 질문들

- “Thank you” - 전기소모, 환경적 영향, 활동가가 이용해도 될까?
 - 편견, 편향, 차별적 데이터로 학습된 생성형 AI를 이용해도 되는가?
 - 생성형 AI 이용이 노동자를 대체한다는데 이용해도 되는가, 활동가도 대체될 수 있다?
 -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어려움 - “AI와 뭐가 다른거지?”
 - 생성형 AI 이용 정도에 따른 이해의 차이 - “일단 생성형 AI 사용 좀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 FOMO(Fear Of Missing Out)
- 이야기를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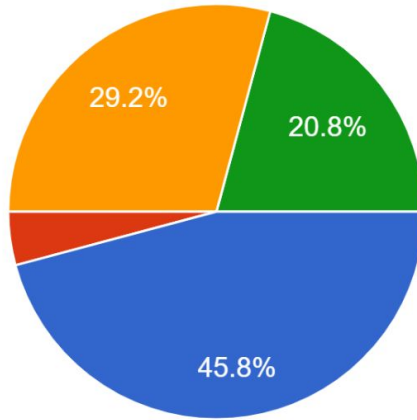
3. 현황 파악1: 구성원 설문조사

2025.09. 구성원 42명 중 23명 참여

연차

연차가 어떻게 되시나요?

응답 2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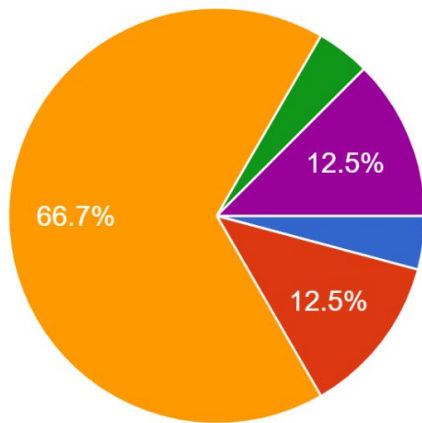


- 3년차 이하
- 3년차 초과 ~ 7년차 이하
- 7년차 초과 ~ 14년차 이하
- 14년차 초과

(업무 목적) 활용 빈도

(업무를 위해) 활용 빈도가 얼마나 되나요?

응답 24개



-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 호기심에 몇 번 사용해 본 정도
- 필요한 경우에만 불규칙적으로 사용
- 주 2-3회 이상 사용
- 거의 매일 사용

(업무 목적) 사용해 본 적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

- 챗GPT (95.8%)
- 딥엘(41.7%), 캔바AI(37.5%),
제미나이(25%), 퍼블렉시티(20.8%)
- 클로바엑스, 노트북LM, 뤼튼 등 4.2%

(업무 목적) 생성형 AI 기능/용도

- 자료 서치(13건), 글요약정리(11건),
번역(9건), 글교정작업(8건),
기획안쓰기(7건), 이미지생성(6건),
데이터 검증(5건)
 - 녹취(4건), 음성 파일 제작(2건)
-

사용해 본 생성형 AI 중 추천

- 챗GPT/제미나이 : 엑셀 수식도 GPT에 검증하면 아주 효율적임. 자료 검색, 특히 한국어-외국어 섞인 자료 검색 시간을 매우 단축해줌, 계속 바뀌는 프로그램 사용법 쉽게 검색 (ex. 어도비 프로그램 설정, html 코드 관련 등)
- 노트북LM : 보안, 음성/영상 변환 가능
- 번역 : 딥엘, FELO, 챗GPT / 연설용, 활동가용, 정중한 표현 등 상황에 따라 번역 해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장 학습시키면 편함 (ex. 참여연대-PSPD, 3축체계 - Korean Three Axis System)", 번역작업이 필요할 때 파파고와 교차검증하며 사용하기에 용이함(해외 논문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작업물의 번역에는 다소간 불편)
- 교정교열 작업에 AI 만한 게 없더라고요.

생성형 AI를 사용하면서 고민이 되는 지점

- **근본적인 고민** : 기술의 진보는 편향적임. 지금 주어진 선택지는 거부/수용. 어차피 우린 알고리즘은 모르고 표피만 볼 것임. 이 알고리즘의 세계의 실체는 모른 채 주어지는 편의를 누릴 뿐. 예컨대 우리가 마시는 스타벅스가 팔레스타인 민중을 죽이는데 쓰이는 현실 같은 것.
- **기후위기** : 탄소 배출을 고려할 때 AI를 통해 이미지 생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
- **적절한 사용** : 업무에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함. 적절하게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음. 여러 우려와 비판할 지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참여연대가 업무에 ai를 활용한다면 당장은 자료조사나 요약, 초벌의 기획, 이미지 제작 등 기초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수준일 거고 매우 보조적인 활용일 것임. 그 정도 기능이면 적절하게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 **노동 대체 문제** : 비용 때문에 AI통역을 사용했는데, 인간을 대체하는 영역이라 고민이 되었음.
- **활동가가 할 일** : 앞으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일에 집중.

참여연대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팩트체크]** 반드시 인간의 직접 검증작업이 필요
- **[투명성]** AI 이미지라면 꼭 표시 하기, AI 사용에 경각심(?) 갖기, '(발표 중에) 챗지피티에 물어봤다'
- **[차별/혐오표현 규제]** 차별/혐오적 데이터 관리/규제에 관한 내용, 이미지 사용 및 이미지로 보여주고자 하는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
- **[대외비]** 민감한 주제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회의의 경우 녹음해서 ai 등을 이용해 풀지 않는다는 가이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활동가 숙련/훈련]** 아직 참여연대 입장을 숙지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입장문 작성 등 콘텐츠 작성에 AI 활용하는 것이 훈련과 학습의 기회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의 기준이 필요 / 중요한 문서 작성시 어떤 수준까지 AI 활용이 가능할지 가이드를 제시

4. 현황 파악 2 : 오지랴한 마당

2025.09. 구성원 42명 중 18명 참여

오지랖한마당 주요 질문

- 생성형 AI 활용하면서 드는 고민
-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업무 영역
-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안될 것 같은 업무 영역
- AI 리터러시 교육을 한다면 꼭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사항

질문 : 생성형 AI 활용하면서 드는 고민

- 대시민 응대를 AI로 활용 시 시민단체로서의 진정성에 대한 고민
- 상대방이 AI로 활용한 내용물(논문, 민원 등)을 보내왔을 때 판단기준 부재
- 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효율성인지 고민
- AI에 따른 결과물 획일화
- 숙련과 훈련의 과정이 대체되는 것은 아닌지
- 혐오와 차별, 개인정보침해 등 부작용
-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까지 써야 할지 경계 필요
- 대세라고 그냥 쓰는 것은 문제, 시민단체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 같아 불편함

질문 : 생성형 AI 활용하면 좋을 것/안될 것 같은 업무

- **좋을 것 같은 업무**

- 기획안, PPT 등 작업의 서브, 자료검색, 비문, 윤문교정 등 문서작업의 시작과 끝 점검, 언어번역, 대용량 데이터 요약, 회의록 정리 등에 시간 절약

- **안될 것 같은 업무**

- 정무적 판단 필요한 것, 개인정보나 조직의 비밀 포함되는 경우는 안됨
- 콘텐츠 생산(시민단체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
- 시민민원 등 피드백 주는 것

질문 : AI 리터러시 교육으로 좋을 것 같은 사항

- 정확하고, 명료한 프롬프트 작성법
- 잘 쓰고, 잘 묻고(명령), 잘 판단하는 법 등

5. 가이드라인(안) 만들기 : 과정과 쟁점

참여연대 가이드라인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1. 시작 : 있는 자료에서 시작하기

- <시민사회를 위한 생성형 AI 가이드>를 토대로 참여연대 현황/업무환경 등을 반영해 수정함
- 비영리단체, 언론사, 기업 등 최대한 많은 자료 찾기
- 심지어 챗GPT에게도 물어봄



2. 가이드라인 명칭 정하기

Q. 다음주 가이드라인으로 적합한 이름을 고르시오.

-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 생성형 AI 이용 및 규제 가이드라인

3. 가이드라인 구성

1. 총칙

- 1) 목적
- 2) 기본원칙
- 3)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2. 생성형 AI 이용 지침

- 1) 정보의 정확성 확인
- 2) 편향 및 고정관념(stereotype)에 대한 비판적 검토
- 3)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4) 저작권
- 5) 생성형 AI 활용의 투명성
- 6) AI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3. 정책의 수립과 집행

4. 기본원칙 10가지

이 원칙은 참여연대에서 생성형 AI의 이용과 제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규율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참여연대에서 이용하는 생성형 AI는 인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생성형 AI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사용하기에 앞선 원칙)

01. 참여연대는 생성형 AI를 단체의 목적과 비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용한다.
02.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단체에 있다.
03. 생성형 AI 이용은 활동가의 판단과 숙련을 대체하지 않는다.
04. 생성형 AI는 보조적 수단임을 분명히 인식한다.

4. 기본원칙 10가지

(사용할 때 원칙)

05. 참여연대는 고위험AI를 사용하지 않는다.
06. 생성형 AI 사용시 차별과 편견을 포함하거나 강화해서는 안 된다.
07. 생성형 AI 사용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안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08. 생성형 AI 발전이 환경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사용한다.

(사용 후 원칙)

09. 생성형 AI 이용 데이터와 결과물이 정확한지, 최신 정보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0. 생성형 AI를 사용하였음을 분명히 알리고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쟁점

- 이용 지향 vs 이용 지양
- 투명성 vs 신뢰성
- 효율성 vs 교육/훈련/숙련의 과정
- 권고조항 vs 의무조항
- 적용범위 : 단체 활동가 < 협력업체 < 재능기부(전문가, 자원활동가 등) < 연대 단체

후속 작업 : 생성형 AI 이용과 교육

- 구체적 매뉴얼

- 예) <회의 녹취 관련 매뉴얼(안)>

- 서버 기록이 우려되는 자료는 녹음/녹취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더라도 서버에 기록될 수 있음을 인지해 조심히 사용한다.
- 생성형 AI 활용 여부에 대해서 팀장과 반드시 사전에 논의한다.
- 사전에 녹음 & 녹취 푼다는 것을 참석자들에게 고지한다.

후속 작업 : 생성형 AI 이용과 교육

- 교육 및 역량 강화

- ① 모든 구성원이 본 정책을 숙지하고, 교육 프로그램에는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확률적 생성), 환각 현상의 위험성, 환경·윤리적 쟁점 등을 포함하여 구성원들이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 ② 생성형 AI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프롬프트, 생성형 AI 결과물 사례를 기록하고 주의점과 함께 공유한다.
- ③ 활동가가 생성형 AI 결과물의 편향·차별 표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시행한다.
- ④ 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신입간사의 훈련을 위한 수습기간에는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한다.

6. 이야기의 결말

더 나은 시민운동의 수단을 고민하며

“뉴스레터에 생성형 AI로 요약한 음성을 제공할까?”

아직 논의 중입니다.

왜냐하면 뉴스레터 구독자에게 가장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가닿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44개 단체가 뭉쳤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이 세상을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제법 관철은 보조적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의 역할이 꼭 필요하니까요.

함께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4. 9. 김희순